

【 2015.07.09(목) 강원일보 】

“새 공공공사 입찰 방식 중소건설사에 불리”

업계 “독과점 등 유발 개선 필요”

정부의 공공공사 입찰 방식이 도내 건설업계를 고사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건설사들의 출혈 경쟁을 부추겨 경영난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

최저가 대안으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종합심사낙찰제 역시 대표사와 함께 공동구성원의 실적을 포함해 낙찰자를 결정하면서 시공능력이 풍부한 일부 업체만 유리하고 중소기업일수록 불리하다. 이에 따라 대형업체들이 중소기업체와 공동도급 시 평가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실적이 낮고 경쟁력이 약한 지역 중소기업사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도내 건설업계는 중소기업사 참여 확대를 위해 공사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현행 사전심사 수준으로 완화하고 시공평가점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은 낙찰 가능업체가 일부에 불과해 독과점·담합을 유발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기준이 완화되면 현재 70%대인 최저가의 낙찰률보다 10%가량 높아져 지역 건설사의 참여 확대는 물론 수주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 2015.07.09(목) 건설경제 】

건협 강원도회, 21대 임원회 개최... 임명패 수여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지난 7일 강원 춘천 도회 회의실에서 제21대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인철 회장 취임 이후 임원들 간 상견례 자리로, 임원들에게는 임명패 등이 수여됐다.

앞서 도회는 김정섭(신진종합건

설)·박원철(중미건설)·최상순(효창건설) 등 부회장 3명과 김영수(강원건설) 감사를 비롯해 25명의 운영위원, 15명의 윤리위원 등 임원을 선임했다.

본회 대의원으로는 회장 및 부회장단, 감사 외에 김찬용(대양), 염돈설(토진종합건설), 최은상(요진건설산업) 임원이 선임됐다.